

## 평택지구 성당건축의 典禮空間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Catholic Church's Liturgical Space in Pyeongtaek

황용운\*

Hwang, Yong-Woon

김요찬\*

Keum, Yo-Chan

#### Abstract

Liturgical space is the most important in the spaces of catholic church architecture. But Since 1980's, Korea catholic church has concentrated on functionality, decoration and sensuous expression. Thus this study analyzed the catholic liturgical space for reinforcing the present status of catholic church through Pyeongtaek district's parish in Diocese of Suwon. Although there are many compositional elements in catholic liturgical space, this study focused on the figures of church plane, the arrangement of nave's chair, the condition of sanctuary and the place of sacristy etc. Though there are many changes in composition elements of liturgical space by the 2nd Council of the Vatican, composition elements of site(shape, price, access road, area etc.) have an effect on liturgical space, too. But up to now, despite the necessity of the principles of liturgical space which are yet to be lacked.

Keywords : Pyeongtaek district's parish, Liturgical Space, Architecture of Catholic Church

주요어 : 평택지구 본당, 전례공간, 성당건축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0년의 역사를 가진 가톨릭이 1784년 한국에 천주교<sup>1)</sup>로 전래되기까지 약 220여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의 가톨릭 교회사에서 성당건축은 겨우 100여년 밖에 되지 않는다. 비록 서구에 비해 짧은 가톨릭 역사를 가진 한국이지만 한국의 가톨릭 전래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교사의 전교로서 수용된 것이 아닌 서학을 공부하던 우리 유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수용,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의 거대화, 세속화, 물질주의 경향 등 외형적, 양적인 팽창으로 한국내 가톨릭 신자는 2003년 12월 기준으로 4,430,791명이라는 전체인구(48,823,837명)의 9.08%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현대성당 건축의 쇄신<sup>2)</sup>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회건축의 흐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전례쇄신의 이념이 실제 전례형태와 내부공간 구성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외형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다. 80년대 이후에는 기능성과 장식, 감각적인 표현에만 집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공간보다는 물질적 형태와 그 의미 전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sup>.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

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sup>4)</sup>.

이 만큼 전례공간은 성당건축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이다. 이에 평택지구를 중심으로 가톨릭 전례공간이 건축에 어떻게 표현되고 적용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전례공간 계획시 기초적 자료로 활용함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례의 개념·의미·공간구성

#### 1) 전례의 개념

종교건축은 의식·의례행위에서 비롯된다. 즉 속세에 속하는 인간과 다른 세계에 속하는 어떤 영적 인격자와의 만남의 장소로서 출발하듯 종교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절대자'라는 종교의 대상이 있어야 하고, 다음에는 '절대자'와 '인간'과의 관계정립 과정이 필요하다. 종교는 '절대자'에 해당하는 '교의(Dogma)'가 있고 종교의 주체인 인간이 해야하는 '종교윤리'가 따라와야 하고 뒤이어 관

1) 중국에서 하느님을 천주(天主)로 부르면서 유래된 것이며, 전래 초기에는 서학, 천주학, 천주교로 불리우다 1932 천주교, 가톨릭교로 공식 지정되었음.

2) 제 2차 바티칸공의회(1961~1962)에 의해 카톨릭 교회의 내적 쇄신, 현대에 적응 등 많은 변화를 가져옴

3) 전혜영(2001), 가톨릭 성당건축의 전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p.10

4) 전례헌장, 제1장 거룩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일반원칙 참조

\*동양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계를 정립하는 ‘종교의식’이 있어야 한다<sup>5)</sup>.

여기서 소위 ‘종교의식’이란 문제를 놓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례(Liturgia)라고 한다. 다시말해, 전례는 교회가 성서나 성전(聖傳)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儀式)으로 개인의 신앙생활과는 구별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그 전례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천주교 최대의 성찬의식이며 천주를 찬미하는 미사(Missa, 彌撒)<sup>6)</sup>이다. 그밖에 성사(聖事)<sup>7)</sup> 및 준성사(準聖事)<sup>8)</sup>, 성무일도(時間典禮)<sup>9)</sup>, 성스러운 행렬, 성체강복식(聖體降福式)<sup>10)</sup> 등이 전례에 포함된다.

2) 전례의 어원적 의미

이 말의 원어(原語)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10:11에 나오는 그리스어의 ‘liturgia’이며, ‘민중(laos)’에 대한 봉사(ergon)를 의미하였다.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교회의 구빈사업(救貧事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였다(2고린 9:12). 그런데 민중에 대한 봉사나 구빈사업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뒷날에는 교회의 의식이 전례라는 말로 굳어지게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sup>11)</sup>는 “전례를 통해서 우리 속죄의 구원사업이 수행된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된 교회의 본질을 다른 이에게 드러내 보이고 명시하는 데 가장 큰 도움”(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이 되는 것이 전례라고 말한다. 전례는 하느님과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과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되어 있다. 전례의 주체는 교회이며, 전례는 교회의 위임에 따라 지정된 성직자가 거행하는 의식적 행위 전체라고도 정의된다.

3) 전례의 역할 및 구성공간

교회의 전례는 하느님을 세계의 창조주로, 또한 주재자(主宰者)로 공경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속죄를 드리며 기원하는 역할을 가진다. 이러한 전례행위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사목헌장」에서 “교회는 자기 고유의 전통을

표 1. 전례공간의 구성요소와 기능

구성요소	기능
제단 (Altar)	제대, 십자가상, 감실, 사제석, 성서 봉독대 등으로 구성되며, 신자석과 구분을 위하여 몇단의 계단에 의해 사제공간보다 높게 형성된다.
제의실 (Sacristy)	전례에 필요한 모든 제구, 기물, 제의 등을 보관함과 동시에 사제가 제의를 입고 준비하는 장소.
회중석 (Nave)	일반신도의 좌석부분으로, 교회에서 가장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부분.
성가대 (Choir)	전례행위를 거행할 때 성가를 부르기 위한 합창단을 위한 공간이며, 성가대는 의식을 보다 경건하고 장엄하게 거행하기 위한 것이다.
고해소 (Confessional)	전례공간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중석 뒷부분에 위치하여 신자의 죄를 신부에게 고백하는 장소.

유지하면서 동시에 스스로의 보편적 사명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여러 형태의 문화와 접촉할 수 있고 또 그로써 교회와 여러 가지 문화가 함께 풍요해지는 것이다<sup>12)</sup>. 라고 언급되었듯이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수용하면서 ‘본방화 혹은 현지화(indigenization)되고, 이 현지화를 통해서 민족들의 모든 인간적 현실이 그리스도 몸의 생명안으로 취해지고, 모두 정화되고, 치유되고, 완전해지고,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sup>13)</sup>.

2. 수원교구 및 평택지구 현황

1) 수원교구 설정 및 현황

현재의 천주교회 수원교구는 1963년 2월 서울대교구에서 경기도를 분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그해 10월 7일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교황 바오로 6세가 공포한 수원교구 설정 칙서 ‘최고 목자’ (Summi Pastoris)에 의해 수원교구가 서울대교구에서 분리되어, 고등동 성 요셉 대성당<그림 17>을 주교좌로 1963년 10월 7일정식 교구(教區)이며, 자치교구로 승격되었다. 설정 당시, 1개市와 10개 郡(평택군 포함), 관할면적 5,425 km<sup>2</sup> 경기도 한강 이남지역으로 24개의 본당에 신자 42,548명으로 당시 관할지구 인구 1,326,800의 약 3.2%으로 한국 성당교구가 1831년 조선대교구로 설정된 후 10번째 교구이며 8.15 광복 후 설정된 교구 중 부산교구(1957년 설정)다음으로 2번째 방인교구(邦人教區:본토인 교구)가 되었다. 2004년 8월 현재, 경기이남 지역을 관할지역으로 13지구 153개의 본당(17개시 2개군<sup>14)</sup>)이 소속된, 전국에서 관할면적으로는 10번째이지만 본당수로는 두 번째 큰

5) 박도식(1993), 종교의식의 차원에서 본 가톨릭 교회의 전례의 의미, 효성여대 가톨릭 교육연구

6) 라틴어의 Missa에서 유래. 중국어 미사(彌撒), 한국어 미사는 한국 발음을 그대로 딴 것. Missa는 원래 Mittere(보내다, 파견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

7) 성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교회에 맡긴 “은총의 표징(表徵)”들로, 하느님의 은총을 풍부히 받는 의식을 성사(聖事)라고 하며 일곱 가지가 있다.

8) 영신적인 유익을 위하여 성사를 모방한 것으로 현세적인 은혜가 내리도록 하는 행위나 물건, 즉 성수나 성유를 사용하거나 성호를 긋는 강복 등을 말한다.

9) 이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느님을 찬미하는 교회의 공적 공동기도를 말한다.

10) 성체에 대한 신심의 표현으로, 성체를 현시(顯示)하여 신자들이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제가 성체로써 강복하는 성체 신심의 한 전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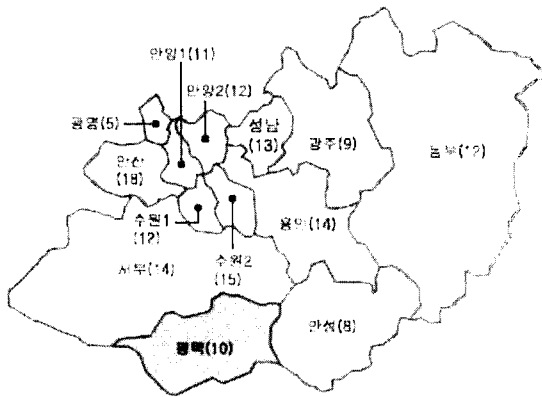
11) 제2차 바티칸공의회(1962.10~1965.12)는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Sacrosanctum Concilium)등 4개의 헌장’과 9개 교령, 3개의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현대교회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교회건축 방향을 제시해주었다.

12) 「사목헌장」(GS),58항,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의 통찰화와 관련된 문헌으로는 「전례헌장」(SS),37~38항, 「선교교령」(AG),22항

13) 김용태, “종교의 현재적 적용”,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01, p.163~164

14) 경기도 수원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성남시, 시흥시 일부, 대부동을 제외한 안산시, 안성시, 안양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의왕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양평군, 영주군(총 17개시 2개군)

### III. 본 론



\* ( ) 의 숫자는 관할지구의 본당수  
 그림 1. 2004년 수원교구 13지구 분할도

교구<sup>15)</sup>로 성장하였다.

#### 2) 평택지구 현황

평택지구는 수원교구 13개 지구 중 하나로서 수원교구 설정당시 평택군<sup>16)</sup>(1986. 1. 평택시 승격)으로 평택성당과 서정리성당 2곳의 본당으로 시작하였다. 현재 평택지구는 평택시와 안성시 지역(안성시 공도읍 지역) 일부를 관할 지역으로 하고 있다. 평택지구 본당의 경우 대부분 국도 38번과 1번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은 좋은 편이며, 10개의 본당으로 이루어졌다.<표 2>

본 지구의 소속본당들이 자리한 위치상 특성은 크게 2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최근에 설립된 성당들로서 최근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는 신개발지역에 위치하는 경우(팽성, 비전동, 송현, 진사리), 두 번째, 어느 정도 도시화를 이루고 있는 기존 상업지역내 또는 기존 주택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된지 20년 정도(80년 전·후)된 본당(평택, 서정동, 송탄, 안중, 송서)들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경우에는 최근 아파트 개발분을 타고 개발되기 시작한 신개발지역의 주변 또는 인근지역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설립당시 도시의 외곽지 또는 주변지역이었지만 기존지역의 도시적 확장과 도로망의 연결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도시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하게 되는 경우이다.

표 2. 평택지구 소속 본당 설립 및 지역구분

시	본당	설립	지역	시	본당	설립	지역	
평택시	평택	1928	상업	평택시	팽성	1983	신개발지	
	서정동	1938	상업		비전동	1995	신개발지	
	송탄	1965	기존주거		송현	1998	신개발지	
	안중	1966	기존주거		안성	진사리	1998	신개발지
	송서	1982	기존주거		평택	궁리	1998	가건물

15) 첫 번째 교구는 서울대학교로 본당수가 254개소이며 이 중 2004. 7월 52개 본당이 의정부교구로 설정됨.  
 16) 현재 평택시의 면적은 452.31 km<sup>2</sup>, 행정적으로는 2읍 7면 13동으로 구성, 인구는 371,679명에 달한다.

#### 1. 사례 조사·분석

##### 1) 조사 대상 및 조사 방법

2004년 8월 현재 수원교구 관할지역에 소속된 13개 지구 가운데 평택지구에 소속된 10개의 본당<sup>17)</sup> 중 가건물(궁리 성당)을 제외한 9개 본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평택지구를 선정한 이유는 1928년 설립된 평택성당에서 최근에 봉헌받은(2004) 송현성당까지 다양한 년도에 걸쳐 설립된 지구이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연구대상 본당들을

표 3. 본당 전례공간의 구성 요소별 분류

	평택	서정동	송탄	안중	송서	팽성	비전동	송현	진사리
설립	1928	1938	1965	1966	1982	1983	1995	1998	1998
준공	1995	1992	1979	2000	1987	1983	1996	2004	2001
대지면적(m <sup>2</sup> )	6,672	9,155	4,194	7,100	1,642	-	2,650	3,254	4,744
대성당 층수	1층	2층	2층	1층	1층	2층	2층	2층	1층
제의실 위치	제단	제단	제단	제단	제단	제단	제단	제단	제단
고해소 위치	성당내	성당전	성당전	성당내	성당내	성당내	성당전	성당내	성당전
평면 형태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	장방형	마름모	사다리꼴	장방형	부채꼴	육각형
중층 가능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회중석 배열	부채꼴	부채꼴	장방형	장방형	부채꼴	장방형	장방형	부채꼴	장방형
회중석 바닥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평
네이브 아이	구분	무	무	무	무	무	구분	구분	무
창문	전통문양	S.G	전통문양	맑은 유리	S.G	맑은 유리	S.G	S.G	맑은 유리
천정 형태	볼록	사각모임	약간 원호	약간박공	부채경사	평	원형리브	부채볼록	다각모임
감실 위치	후우	후좌	후좌	후좌	후좌	후좌	후좌	기타우	후좌
제단 방향	북동	서북	북쪽	북동	동남	남	남	동남	남
벽재료 +색깔	인공석 백	화강석 회색	나무 고등색	페인트 백색	적벽돌 적색	적벽돌 적색	적벽돌 적색	본타일 회색	회색 회색
제단바닥재료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대리석
제단	3단	3단	5단	3단	3단	3단	3단	3단	3단
제단 구분	재료, 높이	재료, 높이	높이	높이	높이	재료, 높이	재료, 높이	T.A, 높이	색깔
제단 빛유입	상	상	상	후상	좌우	상	상	상	좌우
빛의 유형	자연광	자연광	인공광	자연광	자연광	인공광	인공광	자연광	자연광

\*층수: 대성당의 층수를 의미 함 - 지상/지하 - 부속동 제외  
 \*S.G-스테인드 글래스/ GB-유리블럭 / T.A-triumphal arch  
 \*제의실 및 고해소 위치 : 미사시 신부님과 신자들 기준  
 \*제단구분 : 회중석영역과 제단영역을 구분하고있는 구성요소

17) 희랍말의 *paroikia*라는 말에서, 라틴어로 *parocia*, 영어로 *parish*라 함. 중국에서 본당(本堂)이라고 한 것을 그대로 사용. '이웃에 살다' '함께 살다' 라는 뜻이다.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 현장조사, 관련자료(복음화 보고서) 및 평면도를 기본자료로 전례공간을 구성하고있는 평면형태, 회중석 배열, 제단현황, 제의실 위치, 단면상의 중층 유·무 및 기능 유형 등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2) 조사 대상 분석

각 본당들은 설립년도<sup>18)</sup>와 구분없이 대부분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에 90년 이후에 준공되었다.(송탄(79), 송서(87) 제외) 본당내 전례공간인 대성당의 위치와 대지면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표 3> 대지면적이 넓은 경우(4,000 m<sup>2</sup> 이상인 경우-평택, 서정동, 송탄, 안중, 진사리) 대성당의 위치는 1층인 경우가 많았고, 대지면적이 좁은 경우 대성당의 위치를 2층으로 배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탄 성당의 경우에도 대성당의 위치가 비록 2층이라고는 하지만 지형의 경사로 인하여 주진입 방향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성당은 1층에서 곧바로 진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서정동 성당의 경우에는 평택지구 본당들 중 가장 넓은 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높이가 다른 두 대지로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기존의 舊성당과 新성당이 같은 대지내에 자리하고 있어 신축시 대지의 활용성에서 제약을 받았을 것이며, 이에 新성당이 다층화되면서 대성당의 위치가 2층으로 배치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4~7> 이러한 변화는 경제성장과 인구증가에 따른 교세확장 필요성, 증가하는 신자들을 수용 할 수 있는 성당규모 확대의 필요성, 사회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다양한 활동들을 수용하기 위한 다양한 공간의 필요성 등이 요구되는 반면에 기존 도시내 지가상승에 따른 넉넉한 토지수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사공간, 교육공간, 친교공간, 주거공간 등을 하나의 건물내에 수용함으로써 다층화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미사예식 중 기능적으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집회의 장이 되어야 할 평면형태의 경우에서 평택지구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장방형 보다 다양한 평면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0~1965.12)에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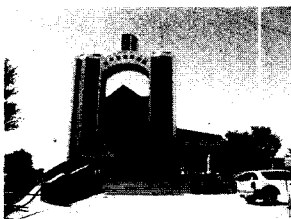


그림 2. 송탄성당의 주진입 (대성당)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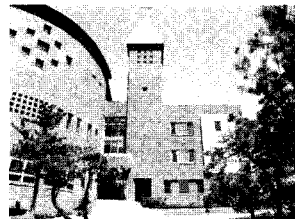


그림 3. 3층(지하2층)의 송현성당 정면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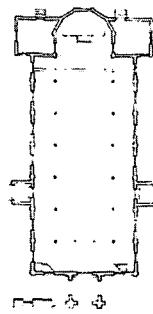


그림 4. 舊서정동성당의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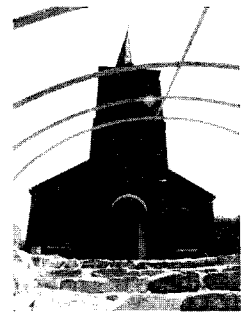


그림 5. 舊서정동성당 (現-유치원으로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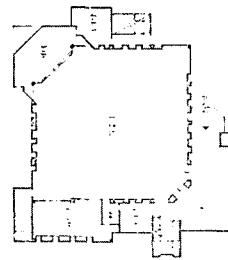


그림 6. 新서정동성당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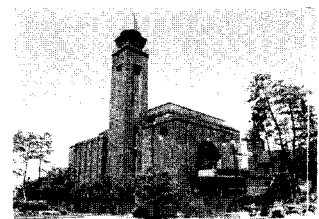


그림 7. 新서정동성당의 모습

(Sacrosanctum Concilium)’이 공포된 이후 괄목 할만한 변화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표 4><sup>19)</sup>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63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성당건축의 평면 형태는 초기바실리카(장방형) 또는 라틴-크로스(+)형이 대부분이었지만, 63년 이후에 마름모, 원형, 사다리꼴 형태 등 다양한 평면들이 근대건축의 공간성 창조와 같이 나타난다. 이런 현상이 평택지구 본당들의 평면형태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평택지구에서도 이러한 변화의 대표적인 사례로 서정동성당을 들 수 있다. 1934년 신축된 초기 舊서정동 성당<sup>20)</sup>의 경우 삼랑식 장방형 형태에 좌우 입구와 앵스 부분에 미약하게 수량이 첨가된 티형(T)형 평면에 7각형의 앵스(Apse)의 제단부로 구성된 형태이었지만, 서정동의 도시 확장과 신자들의 증가로 1992년 본 대지 옆에 신

표 4. 한국성당건축의 시대적 평면유형

시기	내용
1880-1925	초기 그리스도교 양식의 바실리카 형식이며, 전체적으로는 장방형 평면 형태를 보임.
1926-1945	초기 그리스도교 양식의 바실리카 평면에 수랑(Trancept)가 첨가된 Latin-Cross(+) 형태
1946-1962	전시대의 Latin-Cross 형태의 평면이 주종, 서양과의 차이·성가대석 위치 및 영성체 난간의 유·무
1963 이후	자유로운 평면구성, 규모의 거대화, 도시내 토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층수가 높아지는 경향, 지하층 공간의 사용이 현저하게 나타남

18) 천주교에서는 본당의 건물준공년도보다 본당 설립년도와 축성년도를 중요시한다. 본당이 준공되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축성(祝聖:consecration)을 준공년도에 반해 설립년도와 준공년도가 다를 수 있다.

19) 한만균(1990), 한국가톨릭 성당건축 미사공간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p.12~p.14

20) 설계 : 폴리마르(josephus Molimard, 프랑스 신부

축된 新성당의 경우에는 舊성당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름모 형태의 평면과 마름모 모서리 부분에 제단부를 가진 형태로 계획된 경우이다. 현재 舊서정동 성당은 유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제의실(祭衣室, Sacristy)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 제단을 기준으로 좌·우측에 배치되어 있었다. 제의실 경우 전례의 집전을 준비하는 장소인 만큼 존경과 조용함을 도모할 수 있는 장소이지만, 현재 제의실 위치에 관하여 전례적으로 정해진 위치는 없다. 그러나 제의실이 제단 좌·우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미사 집전시 본당 제단 뒤편 또는 건물 외부에서 사제 전용출입구를 통하여 회중석을 통과하지 않고 제의실로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단까지의 동선을 짧게 유도 할 수 있다는 이점을 있다. 그러나 제단 바로 좌·우측면에서 사제가 순간적으로 입당하는 것은 전례의 어원적 의미(…하느님과 구원되어야 할 인간들과의 결합이며, 끊임없는 만남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표현…)를 고려할 때 회중과 일치를 이루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회중석 뒷부분에서 회중석을 거쳐 장엄한 행렬을 이루어 입당하는 것이 종교적인 의례에 신자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종교적 분위기를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전례(의식적 행위)라는 행위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제의실의 경우 회중석 뒷부분에 배치되어 사제의 입장과 퇴장시 신자들로 하여금 전례에 대한 종교적 분위기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고해성사를 위한 고해소(Confessional)가 건축적 장치로 도입된 것은 16세기 이후 참회자와 고해 신부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면서부터이다. 이전까지 고해성사의 경우 신부는 앉고 참회자는 그 옆에 꿇어 앉는 형식으로 주교에게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였으며, 참회자가 보수를 완수하기 전까지는 배랑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초기 교회에서 배랑(Narthex)<sup>21)</sup>은 교회의 입구가 아니었고 성사 참여가 허용되지 않은 사람(예비자나 사죄 받지 않은 자)들을 위해 할애된 장소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 9개 본당에서 고해소의 위치는 5개 본당이 대성당내에, 나머지 4곳은 대성당 입구 전실



그림 8. 진사리성당-제단측면의 제의실 측면 빛 유입



그림 9. 진사리성당-제의실로 들어가는 사제전용 출입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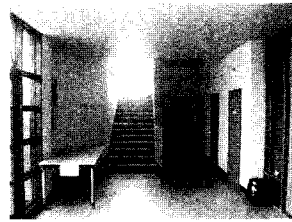


그림 10. 배랑(홀)에 고해소가 위치한 경우-진사리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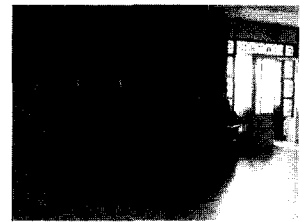


그림 11. 성당내에 고해소가 위치한 경우 - 송서성당

(배랑)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모두 전통적인 고백방식(칸막이에 의한 방식)을 취하였고, 면담형 고백(open confession) 방식을 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교회법에서도 고해성사와 고해소의 위치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교회법 964조에서 성사적 고백을 듣는 본래의 장소는 성당이나 경당이다.라고 하여 신랑(Nave), 배랑(Narthex) 등 교회내 적당한 장소라면 어디에도 배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교회법 916조에서는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이외 교회의 계명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사리를 분별할 나이에 이른 뒤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자기의 대죄를 성실히 고백할 의무가 있다.”<sup>22)</sup> 죽을죄를 지었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크게 통회를 했다고 해도, 성체를 모셔야 할 중대한 이유가 있고 또 고해사제에게 갈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sup>23)</sup>, 먼저 고해성사로 사죄를 받지 않고 성체를 모셔서는 안 된다<sup>24)</sup>라고 성문화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다시 추론하면 첫째, 고해소는 7성사 중 하나인 고해성사를 행하는 곳으로 성당계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공간임은 틀림없다. 둘째, 교회법과 전통적인 고백형식 감안해볼 때 고해소의 위치는 대성당내 보다 전실(배랑)에 설치함이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즉 배랑의 고해소는 건강한 그리스도 생활을 위해서 성사의 중요성을 신자들에게 재인식시키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신도들로 하여금 성체성사를 준비하는 회개로 초대한다는 의미와 속(俗)에서 죄를 사하고 성(聖)으로 들어간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배랑내에 배치되고 있는 관리사무실, 성물판매소, 휴게실(자판기 등 설치) 등에 대한 공간배치계획에 관한 사항들이 충분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회중공간의 경우, 회중석의 배열은 장방형 5곳, 부채꼴 4곳으로 나타났다. 회중석의 바닥의 경우, 모두 경사나 높낮이 없이 평탄했으며, 신랑(Nave)과 아일(Aisle)이 미약하나마 구분되

22) 교회법 제989조. 트리엔트공의회, 제14회기, 「고해성사 교리」, c. 5: DS 1683; 같은 회기, 고해성사 규정, c. 8: DS 1708 참조

23) 교회법 제916조; 동방 교회법 제711조 참조.

24) 트리엔트 공의회, 제13회기, 「성체성사 교령」, c. 7: DS 1647; 같은 책, c. 11: DS 1661 참조, 가톨릭교회교리서, 제4절 고해성사, VII참회자의 행위 참조

21) 입구 홀(포치)을 의미. 단순하게는 고대교회의 입구이지만, 단순한 입구로서가 아니라 속(俗)과 성(聖)의 전이공간으로서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면서(3랑식) 회중석내 기둥이 배치된 곳이 3곳(평택, 비전동, 송현 성당)으로 조사되었다. 창문은 스테인드 글래스를 사용하기 보다 맑은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5곳으로 더 많았다. 장방형 좌석배치의 경우 전례행사 중 신자들의 동선을 규칙적으로 일방통행 시킴으로써 전례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만, 길이의 제약 때문에 수용능력이 한정되며 공간이 획일적이고, 한쪽 방향이므로 뒤쪽으로 갈수록 미사의 집중도가 감소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반면에 마름모(서정동 성당-그림 6)나 부채꼴의 경우(송현성당-그림 13,14) 사각형 한쪽 모서리에 제단이 형성되고 한 정점을 향한 3방향성으로 시각거리가 짧으면서 많은 수용인원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외 회중석의 배열은 전례행렬 뿐 아니라 영성체나 봉헌, 사제의 입당, 십자가의 길 등과 같은 여러 동선들이 원활하도록 고려되어 배열되어야 한다.

창문의 경우 창문을 통해서 회중석으로 들어오는 빛은 회중석의 공간을 신비롭게 느끼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 조사대상 중 5곳의 본당의 경우(평택, 송탄, 안중, 팽성, 진사리 성당) 회중석 좌·우 맑은 유리로 인해 신자들이 미사시 창문을 통해 외부공간을 본다든지, 자연빛이 아무런 여과없이 투과됨으로써 미사의 집중도 뿐 아니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정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개념의 박공지붕에서 느낄 수 있는 양천적인 분위기보다 대부분 평천정(비전동 제외) <표 5>에 가까웠다.

이는 지상에 세워지는 성당은 조금이라도 하늘 가까이 접근하려는 뜻에서 평지보다 높은 곳에 자리하거나 전례공간의 경우에는 하늘로 상승하는 상징적인 형태를 갖추



그림 12. 일방향 좌석배치 송탄성당



그림 13. 송현성당내부 - 부채꼴 좌석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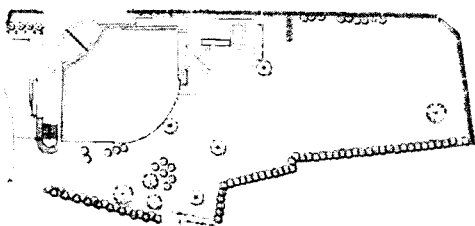


그림 14. 부채꼴 형태의 평면을 이룬 - 송현 성당 배치도



그림 15. 삼랑식-비전동성당 - 스테인드 글래스



그림 16. 삼랑식 - 평택성당 - 맑은유리 사용

표 5. 평택지구 일부성당의 단면 형태 분류

박공형(정면)	모입형(정면)	경사형(측면)	볼록형(단면)
· 안중 성당	· 서정동 성당	· 송현성당	· 평택성당

어야만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시대와 달리 현대 성당 건축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집” “신앙의 집” 과 같은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의 필요성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만남과 같은 세속적인 기능도 함께 담을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sup>25)</sup>으로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초기의 단일개념, 단일공간으로 사용되던 일반적인 장방형 평면과 장방형평면에 가장 보편적으로 채택되었던 박공지붕이 복합적인 기능과 다양한 평면형태에는 적용시키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각 평면 나름대로의 적절한 지붕 형태를 채택했기 때문이라 사료된다.

제단(Altar)의 경우 <표 3>에서와 같이 제단방향이 일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기그리스도의 바실리카의 경우 대부분 東(제단)-西(입구)로 주축을 잡았으며, 이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 이전까지 전통적으로 십자가를 동쪽<sup>26)</sup> 벽에 붙이고 사제와 신자들이 미사시 공통적인 초점(방향)이 되었다. 교회법 1383조에는...암브로시오 성인은“사실 그리스도의 제단이란 그리스도의 몸의 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하고 말했고, “제단은 (그리스도의) 성체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체는 제단 위에 계신다.”라고 기술되어 있어 하늘과 땅이 만나고 시간과 영원히 접촉할 수 있는 장소로서 성당 내에서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현대의 경우 과밀한 도시내에서 넉넉한 토지를 구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의 형태, 주변도로 등 다양한 변화 요소들로 인하여 본당들의 평면형태 및 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제단의 방향이 일정한 방향으로 정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건물을 본당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단의 방향을 처음부터 고려할 수 없게된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적인

25) 전례, 친목, 선교·교육, 지역사회 봉사, 행정·주거 기능 등으로 초기에는 전례 공간으로만 이루어 졌다.

26) 제단을 동쪽에 둔 이유는 회중들이 美의 태양이신 부활의 그리스도를 향해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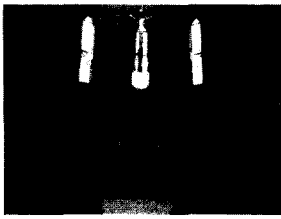


그림 17. 전통적인 조명방식  
- 고등등유쇼셜성당



그림 18. 송서성당  
- 제단과 회중석 재료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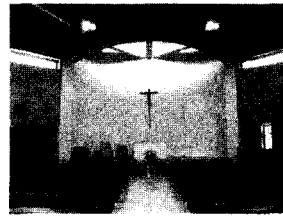


그림 19. 송현성당-제단상부에  
서 빛의 유입, 제단과 회중석  
공간 재료와 색깔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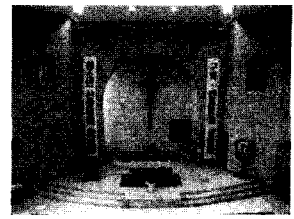


그림 20. 진사리 성당-좌·우  
측면에서 빛 유입-T.A에 의한  
제단을 상징화시킴

성당건축에서 볼 수 있는 방식(스테인드 글래스로 둘러싸인 제단에 동쪽의 햇빛이 들어오는 방식)을 채택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인공조명을 이용한 다양한 방식의 조명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빛의 유입은 제단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이다. 조사대상 2곳(송서, 진사리)을 제외하고는 상부에서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3곳을 제외(송탄, 팽성, 비전동)하고는 자연광을 채택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빛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입시켰던 고딕성당의 경우, 제단위와 양측 벽에 둘러싸고 있는 스테인드 글래스에 따라 채광되고 빛의 방향은 위에서 떨어지게 하는 전통적인 조면방식<그림 17>을 채택했고 야간에는 촛불과 클래식한 블랑켓조명 또는 간접 조명방식이 많았다. 이는 신에게 기도하는 감각에서 제단 후면의 스테인드 글래스를 통하여 비춰지는 빛이 제단공간을 더욱 엄숙하고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여 “하느님의 집”이라는 신성감(神聖感)을, 신자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 사료된다<sup>27)</sup>. 그러나 본 조사대상 본당들 중 전통적인 고딕 방식의 조명방식을 어느정도 따르고 있는 성당은 송서성당 1곳 뿐이었다.

제단과 회중석의 공간 구분은 단순히 제단의 단 높이에 의해서만 구분하는 경우(송서성당)와 제단내에 사용되는 재료, 색을 회중석과 달리 사용함으로써 구분시키는 경우(송현성당)가 있었다.

제단은 전례공간의 중심으로 성당내 가장 존경의 대상이 되는 제대<sup>28)</sup>가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제단부와 회중석이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 단지 제단의 단높이(대부부 3단 ≒ 45~50 cm)에 의해서만 공간을 구분하는 경우<sup>29)</sup>(송탄, 안중, 송서, 비전동) 하늘과 제단에 대한 신비로움과 하느님을 흠송<sup>30)</sup>할 수 있는 종교적 분위기 조성

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자들로 하여금 제단의 영역성을 확실히 심어주지 못을 염려가 있다. 김영곤<sup>31)</sup>의 “제단의 배경색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한 색이 좋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조사대상 성당제단의 경우 적색(송서, 팽성, 비전동-3곳)과 흰색 및 회색(평택, 서정동, 안중, 송현, 진사리-5곳)로 조사되어 강한색(적색-난색)보다 흰색계통을 더욱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빛의 반사율을 높여 제단을 밝게함으로써 신이 신자들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다는 심리적 효과를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가대석의 경우 조사 대상 모든 본당이 회중석 뒤편 중층(2층 형식)을 성가대석(Choir Loft)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성가대의 역할은 하느님의 은혜를 노래로 찬양하는데 있기 때문에 전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마 미사 총지침”에 의하면 “미사를 위해 모인 하느님의 백성들은 미사 중 행하는 여러 가지 행동과 다른 기능들에서 드러나는 유기적이고 위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성당의 형상은 집회의 형태와 구성원들의 다른 기능들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드러내어야 한다. 신자석과 성가대석은 그들의 역할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되어야 한다.”라는 글의 의미에서 성가대석의 위치는 일반회중석과 구분되어야겠지만, 미사시 시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할 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과 같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위치를 권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일반신자석과 분리된 2층 형식의 공간보다 신자들과 하나될 수 있는 공간에 더불어 배치함이 좋을 것을 사료된다. 그러나 이러한 2층 형식의 성가대 수직적 배치 형식은 좁은 대지에 복합된 기능(주26)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성체보존 장소인 감실(籠室)의 경우 대부분 제단 뒤벽 좌·우측에 배치(송현성당 제외)되어 있었다. 성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목적이요 완성이다. 교회법 제2장의 성체를 보존하는 장소에 관하여 언급된 내용은 제 56조 “성당을 새로 지을 때에는 제52조와 53조에 명시된 원칙을 명심할 것이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제52조 “성체

27) 주26)의 의미와 김영곤(1986), 한국성당건축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p.26 “제단이 동쪽벽에 있는 창문아래 위치하던 전통적인 관습은 제단의 윤곽을 어둡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신비로움을 느끼게 함

28) 성당은 제대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성당이 제대 둘레에 지어진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다.

2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약 h=70cm의 제단난간(Communion rail)이 설치되어 신자가 성체를 받아 모시는 기능과 제단과 회중석의 영역성을 확실히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였지만 제단난간이 없어진 현재에는 제단과 회중석의 영역성 구분이 약해지고 있다.

30) 이는 지존하신 하느님께만 드리는 최고의 예배와 공경이며, 흠송지례(欽崇之禮)라는 말로도 사용한다

31) 차은주(1986), 성당내부의 제단공간에 있어서의 빛의 디자인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p.10에서 김영곤씨의 논문을 전체를 간략히 기술한 내용을 재인용.

를 보존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같은 성당 안의 단 한 곳 즉, 단 하나의 제단에만 평상시에 계속적으로 성체를 모실 수 있다.” 제53조 “그 자리는 사사 기도에 적합하도록 마련하여 신도들로 하여금 사사로운 기도로써도 성체 안에 계신 주를 쉽게 효과적으로 공경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성당 중심 부분과는 격리(隔離)된 곳에 감실을 안치하는 것이 좋다”. 제54조 “성체는 파괴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감실 속에 보존되어 중앙 제단이나 또는 참으로 훌륭한 작은 제단 중앙에 안치되어야 하며...” 이 뿐만 아니라 교황 바오로 6세는 감실을 “우리 교회의 살아있는 심장”이라고 했으며, 성체성사에 대한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표현들에 의하면 성체야말로 그리스도교의 목적이요 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감실은 성당내 가장 중요한 장소인 제단에 자리하게 되었지만 감실의 위치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못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다. 그리고 감실의 경우 분리된 형식의 채플(성체 조배실(Eucharist chapel))을 두어야 이상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성당에서의 감실의 위치는 전례의 주된 초점인 제단과의 접근성과 제단과 감실사이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으며, 미사시 전례(영성체)의 기능적인(편리함) 요구와 현대의 다양화된 성당의 기능을 수용을 위한 공간부족 등이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IV. 조사결과 및 결론

평택지구 본당들의 전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영역에 관하여 살펴본, 본 연구에서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가톨릭의 내적인 개혁운동으로 60년대 이후의 성당 건축에 많은 변화를 초래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쇠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와 더불어 본당들이 위치하고 있는 대지의 여러 요소(모양, 접근로, 면적, 가격 등)와 더불어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기능(전례, 교육, 친교, 전교, 봉사, 행정, 주거 등)등을 하나의 건물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하고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신자와 사제들의 동선의 편리함이 우선되는 전례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당의 고층화와 장방형의 일반적인 평면형태에서 다양한 평면형태로의 적응을 시도함으로써 장방형의 전통적인 네이브와 아일의 뚜렷한 구분(3랑식)이 없어지고, 장방형보다 미사 참여를 적극적 유도할 수 있는 마름모 형태의 평면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전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에 관한 사항들이 상세히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각 본당들은 상황에 따라 배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 제의실의 경우 대부분 제단 좌·우측에 배치되어 전례라는 종교적 행위에 신자들이 동참할 수 분위기가 미흡했으며, 고해소의 위치의 경우에는 종교적인 의미와

교회법 등에 의해 성당 전실에 배치됨이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대성당 전실보다 대성당내부에 배치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창문의 경우 스테인드 글래스보다 맑은 유리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미사시 전례공간 내 종교적인 분위기 조성보다 신자들의 시선이 흩어지게 함으로써 미사시 집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제단내에 빛의 유입형태에서는 조사대상 대부분이 제단 상부에서 빛을 유입함으로써 초자연적인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영원, 죽음, 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빛인 동시에 회중석보다 밝게하여 신도들의 주위를 끌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인 재단의 빛의 유입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신자들은 하느님을 가깝게<sup>32)</sup> 만날 수 있다는 심리적 분위기를 더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단과 회중석과의 구분에서는 절반이상이 3단의 제단 높이에 의해서만 구분시키고 있어 제단공간의 영역성을 뚜렷이 구분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경향은 재단난간에 의해 제단의 영역성을 구분시켜주는 전통방식과 달리 신자와 가까워지기 위한 현대 가톨릭전례공간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성가대석의 경우, 조사대상 모두가 중층에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런 배치 역시 도시내 좁은 대지에서 충분한 회중석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와 성가대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지만, 성가대도 회중의 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일반 회중과 같이 통일된 시각과 쉽게 미사에 참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위치(제단앞 좌·우측 등)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교회의 살아 있는 심장인 감실의 경우, 조사대상 모든 본당들이 대성당과 성체조배실을 구분하여 배치하지 않고 대성당내 제단 뒷벽 좌·우에 배치하여 누군가 계속적으로 상주하여 성체조배실을 지켜야하는 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미사시 전례(영성체)의 편리함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전례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유형 및 배치에 관한 원칙이 미흡하고, 본당들이 자리한 지역과 여건에 따라 전례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배치에 유연성과 편리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전례가 가톨릭 종교의 가장 중심이되는 종교적인 행위인 만큼 전례공간구성에 관해 공통적으로 적용 될 수 있는 원칙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1. 천주교 수원교구 설정 40주년 기념 준비자료
2. 천주교 조원동 주교좌성당 25주년사
3. 김정신(2004), 유럽의 현대 교회건축, 가톨릭출판사
4. 정진석(1993), 간추린 교회법 해설, 가톨릭 출판사
5. 김정신(1989), 한국 가톨릭 성당건축의 수용과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32) 조명은 일반적으로 밝은 것·가깝게, 어두운 것·멀게 감지됨.



6. 박재환(1987), 현재 한국 성당건축의 전례공간과 조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7. 이준혁(2001), 지역 가톨릭 성당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9. 김해영(2001), 가톨릭 성당건축의 전례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0. <http://dictionary.catholic.or.kr> (가톨릭 대사전)
11. <http://www.casuwon.or.kr>(수원교구청 홈페이지)
12. <http://www.cbck.or.kr>(한국천주교주교회의홈페이지)

(接受 : 2004. 10. 14)